하나님의 굴사냥과 굴속의 기적

(시편 107:1~43)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굴 사냥과 굴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굴 사냥과 굴속의 기적'
동굴 사냥은 굴속에 들어가 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굴이 깊지 않은 경우에는 창이나 장대 혹은 꼬챙이 같은 것으로 찔러서 끌어내고, 굴이 깊으면 연기를 집어넣어 동물을 굴 밖으로 몰아내서 잡습니다. 직접 불을 던져 넣는 방법도 있고 굴이 크고 넓을 경우에는 들어가서 사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굴 사냥의 특징은 동물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 들어간 굴을 가장 불편한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굴을 불편한 장소로 둔갑시키면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굴 사냥이 여호와 하나님의 굴 사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후렴구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5절 21절 3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난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셨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굴 사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굴 사냥과 연관되고, 바로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므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굴 사냥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을 굴속에서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써 활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굴 사냥은 믿음이라는 과정이 없이도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신앙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당하거나 겪게 될 온갖 다양한 곤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어려움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네 가지 곤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네 번 반복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만나는 곤경을 네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곤경들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노래합니다.
첫 번째 곤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항상 부족함과 결핍이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차꼬에 채워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힘입니다. 답답하고 부자유스럽고 억압당하는 상황입니다.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이 사방이 막힌 답답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의도하고 실시한 일들이 실패하여 낭패에 처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거센 풍랑이 산처럼 일어나는 흉흉한 바다에서 거룻배 한 척에 의지하듯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위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처한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이 33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3~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깁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애당초에 그런 곤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교육할 때에 제가 겪었던 곤경을 일부러 줄 수는 없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껏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글 쓰는 것이 형편없다고 밥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한석봉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본 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굴 사냥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 때부터 나타납니다.
그 인자하심의 결과로 인간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갖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창조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짐으로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세계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속였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속였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마음을 채울만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돈은 기가 막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돈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녀가 소중하니 자녀의 형통이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으라고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 건강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속은 대로 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으며 세상 굴속으로 깊이 들어가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굴속에 처박혀서 안정된 세상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요구하면서 편안함을 누리려

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세상 굴에 처박힌 마음을 밖으로 끌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굴 앞에서 불을 지피시는데 광야 같은 환경을 만드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조차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남편은 어쩌면 그렇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아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는지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회사에 가면 승진은 커녕 월급도 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삶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또 나 스스로가 잘 해보겠다고 한 일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을 실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깨뜨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보아도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세상 굴 밖으로 어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뛰쳐나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큰 화재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출 영상을 보면 고층빌딩에서 창문을 열고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소방관들이 대형 튜브 같은 것을 준비하여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의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던져야 하는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굴 사냥도 이러합니다.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삶은 실패하고 안정이 깨어졌습니다. 마치 불이 난 굴과 같습니다. 그곳을 안정적으로 바꾸려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그 나오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불이 난 빌딩에서 탈출하는 길은 뛰어내리는 방법뿐이듯이, 세상 굴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은 끝이 났습니다. 또한 부활하시면서 세상 밖으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사십 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지만 주님이 거하신 차원은 이미 세상 밖이었습니다. 죽음을 지나신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밖으로 부활하셔서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네 가지 곤경에 갇혀서 연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속이 새까맣게 탔다”라는 말을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의부증이 있는 아내 때문에 50세가 채 되지 않은 남편이 간암에 걸려 쇠꼬챙이처럼 말라서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문제 때문에 경제문제 때문

에 새카맣게 타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카맣게 타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불을 지피시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굴의 결말이 영원한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애초에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 질문하시겠지만 그러나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 사랑의 표현으로 만든 사람이, 이 세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로 기뻐하려는 것이 곧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영적 간음을 하려고 안달하며 살아가는 자들조차도 용서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 불을 지펴서 뛰쳐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을 지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뛰쳐나올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문제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활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죄 사함으로만 여기고 그 내용을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은 이제까지 과거의 죗값을 탕감하셨음을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이 내 존재 속에 스며들어있는 유전죄적 체질을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유전죄의 체질이 묶이고 억제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가 계속해서 양산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유전죄의 체질이 억제되지 않는 삶은 죗값 제조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굴 사냥을 오해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곳이 굴인 것을 깨닫고 얼른 뛰쳐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굴속에 연기가 걷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작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시작하려 했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세상의 어떤 가치도 예수님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침 흘리면서 갖고 싶어 하는 세상의 가치를 등지고 하늘로 향하셨습니다. 하늘에 꿀단지라도 숨겨두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뒤에는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며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뛰쳐나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굴 사냥을 통해 굴속에 연기를 불어넣으시며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게 하시고 위기와 실패를 주시면 어지간하면 뛰쳐나와서 하늘로 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굴 사냥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조차 굴속에 끝까지 남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속이 새카맣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연기에 타버려서 훈제가 되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러면서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굴을 뛰쳐나온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8절을 다시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뛰쳐나온 텅 빈 굴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굴이 사업 현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인간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종류의 곤경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인 굴속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하나님이 굴속에서 행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밥을 먹고 있다면 이게 기적이고 버스를 타고 회사를 나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는 껍데기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호흡 한 번을 하는 것까지 기적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굴 사냥에 응답해야 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굴을 안정되고 편한 곳으로 바꾸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입구 삼아 뛰쳐나와야 합니다. '내가 언제 사업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고 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녀와 씨름해도 안 되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굴속에 연기를 피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언제 자식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떠난 문제투성이의 삶의 굴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십 년 간 광야에서 한 일은 그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기적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후렴구 뒤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자들의 상황을 구원하셨고 고통의 상황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음을 찬송하는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굴속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갖도록 허락하셔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떠난 굴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후렴구에 이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구원받고 굴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형식으로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안 벌려서 괴로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낭패가 내가 어리석게 세운 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생긴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 자녀의 삶이 안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곤경에 처하셨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잡고 뛰쳐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보내드리세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주님을 따라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떠난 굴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도 마시고 구하지도 마세요. 그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계시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꼬일 대로 꼬여서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염전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옥토로 바뀐다고 오늘 시편기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굴 사냥을 하실 때에 연기와 불길이 닿기도 전에 과감하게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아예 굴속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유전죄의 체질에 묶여서 끌려들어 갔더라도 지체 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뛰쳐나옴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빠져나간 굴속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